

2008년 7월 28일 말씀

앞으로 방송국세울 것입니다. 세계를 어떻게 다 돌아다닙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서 방송을 해 세계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보고 세계에서 볼 것입니다. 열심히 무한한 자료를 계속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나가면 한 없이 써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써먹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계적인 두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없을 때 내가 세계에 나가서 다 만들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금년도도 한없이 올 것입니다. 내년에도 올 것입니다. 샘을 파놔야 물이 생기는 것 같이 그냥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비만 쳐다 볼 것 없이 땅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연못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상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했느냐를 보고 얼마나 나가지 않게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봅니다. 댐을 막을 때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오느냐. 많이 들어올 때 과감하게 빼버리면 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서 지도자를 평가해야 됩니다.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가다가 또 문제점이 있으면 포기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잘돼도 하기 싫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기 싫으면 평양감사도 못하지 않습니까? 관리했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또 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다가 힘들면 쉬어야 합니다.

예술단들은 예술에 너무 빠지지 말고 신앙에 빠진 후에 예술에 빠져야 합니다. 바닥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닥이 먼저 예술이 되면 안 됩니다. 뿌리는 항상 바닥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 먼저하고 그 위에 예술을 해야 합니다. 유럽 같은 곳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음악이, 문학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상상도 못하게 건축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문화를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문화의 근본을 받아들여서 근본이 신령해져야 거기서부터 극적인 예술 문화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발달 되지 않으면 육체는 발달 안 됩니다. 정신계부터 먼저 발달을 자꾸 시켜야 합니다. 선생도 글을 쓰거나 무엇을 읽을 때 먼저는 글 문구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말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열 번 써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영감이 지나가면 그때 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버릇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구를 찾아야 합니다. 한 절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신령한 세계로 그 시대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애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섭리를) 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막습니다. 옛날 종교도 막고, 자기 주관과 안 맞으면 그것도 막고 강물을 막으면 댐이 되고 댐이 되어버리면 이익이 됩니다. 큰 사람들은 막으면 크게 범람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로 막아도 끊임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심히 끊임없이 기차게 해나가야 합니다. 조금 수고하면 1미터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 한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1미터 올라가고 또 1미터 올라가고 하면 나중에 이 만큼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진적으로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도 한 번에 확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일을 거꾸로 하면 재미가 없고 희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잘 되다가 점진적으로 안 되면 지쳐버리고 희망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산을 올라가듯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구약에서부터 계속 6천년 끌고 오듯이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점진적으로 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나도 30대 때 서서히 준비하다가 34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만 백성을 끌고 오듯, 여러분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역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청중이 있을 때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같이 따라가면 바람결에 따라가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희망 있게 시계처럼 살아야 합니다. 시계는 어디 갖다 놔도 잘 갑니다. 방에 갖다 놓으나 밖에 갖다 놓으나 어떤 곳에 갖다놔도 잘 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은 환경만 좋아도 못 갑니다. 사람은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 만들고 마음이 천국이면 몸이 천국 되고 환경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국에 살아도 떠나야 됩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산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펜도 없이 종지도 없이 중국에 있을 때 몸으로 산다고 머릿속으로 외우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완전히 천재가 되었습니다. 책을 4,5권이 다 외워졌습니다. 전화번호 물어보면 하나도 못 외우는데 이 책 6권을 다 외웁니다.

8월15일 행사 잘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면 천재가 됩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머리가 안 따라오면 조금 오래 가는 것도 있는데 조금만 가르쳐주면 날아다닙니다. 일을 할 때는 밀어붙이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배운 것이 없으면 못한다.’ 고 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으면 청중이 몰려와도 내 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50개국 나라에서 계속 청중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와도 나는 사실상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톱을 깨물면서 손가락을 깨물면서 손바닥을 깨물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 배우고 나가서 가르치면 기대에 어긋나서 다시는 안 오는 것입니다. 애들도 어느 집에 왔다가 먹을 것이 많으면 계속 오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기대에 어긋나서 안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섭리 사는 수 만명, 수 십만명을 만들어 놓으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3만 번도 더 기도해줬습니다.